제5강 이상의 시골체험

1. 이상과 시골

1.1 대도시의 발달

◇ 지구 표면적의 100분의 99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서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 되어서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悶絶)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塗布)된 것

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는 겨울 황원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 그들에게는 희망은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흉리(胸裏)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권태』(조선일보, 1937.5.4~11)

◇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증진했음을 뜻한다.

◇ 공해에 찌든 사람은 공해 속에서 사는 것이 편하다.

→ 도시적 인간은 도시에서 사는 게 편하다.

◇ 김유정(1908~1937)은 철저한 도시인이었기에 객관적인 시골을 그려낼 수 있었다.

◇ 짐멜은 1903년에「대도시와 정신적 삶」이라는 글을 썼다.

→ 대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적 지침서가 될 수 있다.

◇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슬펐다. 나는 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좀 울었나보다. 돈이 왜 없냐면서. (...)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럭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내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잤꾸나. 「날개」『조광』(1936.9)

1.2 이상의 시골여행

◇ 경성에서 태어난 이상은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렸다.

◇ 요양을 위해 시골로 여행을 떠난다.

→ 세 번의 외출 ① 배천 ② 성천 ③ 동경

◇ 지구 표면적의 100분의 99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서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 되어서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悶絶)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塗布)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는 겨울 황원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 그들에게는 희망은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흉리(胸裏)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권태」(조선일보, 1937.5.4~11)

1.3 이상의 권태

◇ 놀고 있는 시골 아이들을 본 이상의 표현 "애들이 권태스러워 발광을 하네."

→ 이상의 자가적 표현

◇ 모든 것이 권태로운 시골의 삶

→ 경성에서의 이상이 얼마나 흥분된 삶을 살았는지 반증해준다.

◇ 이상의 두 가지 권태

→ 시골에서의 권태와 돌아온 경성에서의 권태

→ 결국 이상은 새로운 자극을 위해 동경을 찾는다.

◇ 이상이란 사람은 최초로 화폐와 대도시에 병 걸린 사람이며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다.

→ 그의 위대함은 2~30년대를 그대로 살았다는 점에 있다.

→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향수에 의지해 살지 않았다.